

2003 학 년 도  
신학석사 학위논문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 비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김 종 신

#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 비교연구

지도교수 김 영 선

위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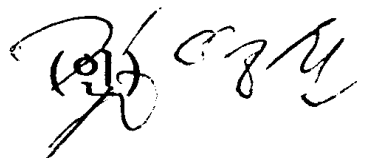
2003년 6월 5일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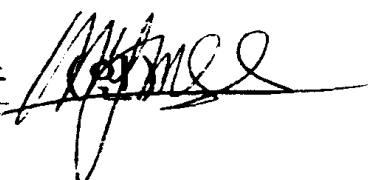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김 종 신

김종신의 신학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영 선 (인) 

심사위원 이 세 형 

심사위원 서 명 수 

2003년 6월 10일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 감사의 글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지금껏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많은 방황과 고민의 시간이 흘러 이렇게 논문을 마치며, 목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종으로 서는 일은 비단 자신의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물심양면 마음고생, 물질적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직신학을 전공하며, 학부때부터 대학원을 거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논문지도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선 교수님과 이세형 교수님, 서명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늘 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보이지 않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장석화 목사님,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교정과 정리를 도와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은수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해준 사랑으로 마침내, 본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목 차

논문요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제2장 “성화”에 대한 어원적 의미	7
제1절 구약에서의 어원적 의미	7
제2절 신약에서의 어원적 의미	8
제3장 웨슬리의 성화론	9
제1절 선행은총론(先行恩寵論)	9
제2절 칭의와 중생	10
1. 칭의	10
2. 중생	11
제3절 성화의 단계	12
1. 초기의 성화	13
2. 점진적 성화	14
3. 완전 성화	15
4. 영화	17
제4절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18
1. 성화와 사회참여	18
2. 경제윤리	19
3. 사랑의 사회윤리	21
제5절 웨슬리 성화론의 특징	22
1. 상승적 성화론	22
2. 역동적 성화론	23
3. 절대의존적 성화론	23
4. 신인협력(神人協力)적 성화론	24

제4장 칼빈의 성화론	26
제1절 예정론(豫定論)	26
제2절 성화의 요소	27
1. 중생	27
2. 회개	28
제3절 성화의 삶을 위한 방편	31
1. 그리스도인의 생활	31
2. 자기부정	32
3. 십자가	37
4. 내세에 대한 묵상	39
제4절 칼빈 성화론의 특징	41
1. 복음적 성화론	41
2. 전인적 성화론	42
3. 종말론적 성화론	43
제5장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 비교	45
제1절 공통된 견해	45
1. 중생에 대한 이해	45
2. 성화의 시간적 개념	45
3. 성도의 노력	46
제2절 서로 다른 견해	46
1. 성화의 시작	46
2. 칭의와 회개	47
3. 완전 성화에 대한 견해	47
4. 성화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49
5. 신학방법론의 차이	49
제6장 결 론	51
참고문헌	55
영문요약	60

## 논문요약

한국교회는 지난 100여 년간의 교회역사 속에서 실로 찬탄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교회와 교인의 양적인 팽창은 질적 성장과 발맞추지 못해 작금에 와서는 오히려 교인수의 감소와 왜곡된 신앙관-광신주의, 기복신앙, 맹목적 성령주의-으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기도 끝에 '성화론'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에 대한 논의를 연구 비교함으로써 진정한 성화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한국사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구도적(求道)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있다.

웨슬리와 칼빈 모두 성화의 개념에 있어 성서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성화에 있어 중생과 회개를 통한 변화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는 측면에 있어 동일하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부분으로는,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화의 모델로 삼아 예정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편들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기부정과 십자가, 내세에 대한 묵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보다 계속적인 개인의 노력과 거룩을 추구하는 점진적 성화론을 나타내었다. 반면 웨슬리는 하나님 은혜의 선함이 먼저 주어진 후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선행은총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화론에 있어서도 단계적 성화론을 말하면서, '초기의 성화', '점진적 성화', '완전성화', '영화'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지 인간의 계속적인 노력뿐 아니라 어느 일정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제2의 축복"-에 의해 상승된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칼빈과는 상이한 측면을 나타낸다. 특징적인 면에서의 차이로

는, 칼빈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과 내세적인 성격의 성화론인 반면, 웨슬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적 성화'라는 사회개혁적 성격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공통된 견해와 서로다른 견해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성화론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할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동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둘째, 교회 공동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면, 이러한 교회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성화의 삶이다. 개인적 차원과 교회 공동체의 성화의 삶을 뛰어넘는 사회적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참여와 바른 경제관, 사랑의 사회윤리의 회복을 통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한국사회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을 통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가 다시 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를 희망한다.



# 제1장 서 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의 한국교회를 조망해볼 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의 양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규모의 대영교회가 세워졌다. 21세기를 맞이하며 작금의 현실을 회고할 때, 과연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실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짧은 시간동안 급성장을 해왔으며, 이는 실로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성숙까지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양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해 신앙적, 윤리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껏 올바른 신학적인 이해의 부족은 또한 광신주의, 맹목적 성령주의, 기복신앙 등 얼마나 많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숙을 방해해 왔는지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새롭게 다져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이미 영국교회에서도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웨슬리 당시의 영국사회가 그렇다. 그러나 웨슬리가 당시 부패하고 침체되어가는 영국교회를 각성시킨 것처럼 성화(sanctification)를 통한 보다 깊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 저성장을 치닫고 있는 한국교회에 도전과 성도들의 갈급함을 해결할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한편, 장로교 신학의 거두라 할 수 있는 칼빈 역시 그리스도를 모델로 성화의 진수에 접근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방

편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론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구도(求道)적 삶의 방향성을 짚어보고, 오늘날 침체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풍요로운 영적 삶을 누리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각성과 참된 부흥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모델로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시는지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상(像)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성화론이 현대에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 물질문명에 의해 혼재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어 해결책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위대한 설교가인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와 장로교 개혁신학의 거두인 칼빈의 성화론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의 서로 공통된 것과 상반된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써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우선 웨슬리의 성화론과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점을 인식하고 양자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검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양론의 긍정적인 부분과 취약부분을 감리교 신학의 맥락에서 성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제2장은 성화에 관한 성서에서 말하는 성화와 관련된 어원적 의미와

구절들을 찾아 구약과 신약에서의 일반적 의미들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신학적인 접근들에 앞서 성서의 '성화'와 관련된 어원적 의미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웨슬리의 성화론에서는 선행은총론을 그 기저로하여 성화의 발전단계 부분을 다루었으며, 칭의와 중생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웨슬리 성화의 단계인 초기의 성화, 점진적 성화, 완전성화, 영화의 각 단계를 설명하였고, 웨슬리 성화론의 특징을 상승적 성화론, 역동적 성화론, 절대의존적 성화론 그리고, 신인협력적 성화론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웨슬리의 신학과 대두되는 칼빈의 예정론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앞서 다루었다. 또한 칼빈이 성화의 요소로서 중요시하는 중생과 회개의 개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후 성화의 삶을 위한 방편들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자기부정, 십자가의 삶, 내세에 대한 묵상들을 논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칼빈의 성화론이 갖는 특징들을 복음적 성화론, 전인적 성화론, 종말론적 성화론으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웨슬리와 칼빈 성화론의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통적 견해로는 중생에 대한 이해와 성화의 시간적 개념, 성도의 노력이고, 서로 다른 견해로는 성화의 시작, 칭의와 회개, 완전 성화에 대한 견해, 성화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방법론의 차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성화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방향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 교회 공동체의 성화의 삶, 사회적 성화의 삶이다.

## 제2장 “성화”에 대한 어원적 의미

성화(Sanctification)는 성서신학과 역사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성경에는 무려 1,000회 이상 나온다. 이 말은 신과 연합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고결함”이나 “거룩함”을 의미한다. 동의어로는 정화, 헌신, 거룩함, 완전함 등이 있다.<sup>1)</sup> 성화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구약에서의 어원적 의미

“성화(聖化)”, “거룩함”, “신성(神聖)함”, “성별(聖別)” 등에 대한 히브리 원어의 어근 qadōsh(קדוש)이다. qadōsh(קדוש) 기본 의미는 희랍어 ἅγιος의 기본 의미처럼 “구별(區別)”,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분리(分離)”를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르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다.<sup>2)</sup>

구약에서 “거룩”의 개념의 특수한 발전으로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거룩”은 무엇보다 야훼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그 외의 모든 사람과 물건은 야훼와 관계될 때만 거룩한 것으로 규정하는데, 특히 제사장과 성전의 경우가 그렇다.(욥 6:10; 사 6:1-5; 호 11:9; 출 19:6, 29:42-44; 레 19:2; 왕상 9:3).

둘째,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개념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도덕적 의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사 5, 렘 5-7, 암4-5, 호11)<sup>3)</sup>

1) “성화” 「성서대백과사전」 제4권.

2) “성화” 「성서대백과사전」 제9권.

## 제2절 신약에서의 어원적 의미

성화를 나타내는 헬라어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ἁγιασμός이다. 이 말은 은총의 상태, 혹은 성결의 상태를 뜻하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의 결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 낱말은 신약에서 10회 나온다.(롬 6:19,20; 고전 1:30; 살전 4:3,4,7; 살후2:13; 딤후전 2:15; 히 12:14; 벧전 1:2) 성화를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 말은 동사형 ἁγιαῖω이며 약 30회 나온다. 이중 몇몇은 도덕적인 징결을 뜻하기도 한다.(요 17:17,19; 행 20:32; 엡 5:26; 살전 5:23; 딤후 2:21; 히 13:12; 벧전 3:15) 명사형 ἅγιος는 “성도(聖徒)”란 뜻으로 신약 성서에서 믿는 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신약에 61번 나타난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를 의미한다.(고전 1:2) 에베소서에서는 ἅγιος와 ἄμωμος가 같은 뜻으로 쓰였다. 즉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간주되었다.(엡 1:4) ἄμωμος란 흠 없는 희생 제물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는 2회 사용되었다.(히 9:14; 벧전 1:19) ἁγιασθῆναι란 말은 복음이 요구하는 바 도덕적 성결의 의미로 3번 사용되었다.(롬 1:4; 고후 7:1; 살전 3:13)<sup>4)</sup>

---

3) Ibid.

4) “성화” 「성서대백과사전」 제4권.

## 제3장 웨슬리의 성화론

### 제1절 선행은총론(先行恩寵論)

선행은총은 ‘보다 앞서, 먼저, 예비하는’ 뜻으로서의 선행으로, 먼저 오는 은총(grace that goes before)이다. 즉 우리의 회심 이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은총, 즉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인간에게 역사하고 있었으며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며 구원을 준비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은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골고루 주시는 은총이다. 따라서 인간이 간구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 자체 안에 주어져 존재하는 은총으로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이 은총밖에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sup>5)</sup>

그러나 인간이 은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에 인간에게 은총이 없는 책임은 그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이를 받아 드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sup>6)</sup> 따라서 선행은총의 개념에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누구나 하나님의 선행은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은총에 응답하면 구원이요, 거절하면 멸망이다. 이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

5)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pp.110-111.

6) Cannon, W. 「웨슬리 신학」, 남기철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p.102.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 의지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적 신인협력(神人協力)설이다.<sup>7)</sup>

웨슬리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하나님의 선행은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양심과 같은 선행은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간접적으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은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선행은총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웨슬리에게 있어 구원은 선행은총과 함께 시작한다.

구원의 시작이 선행은총이라면 선행은총의 목표는 구원이다. 선행은총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실제로 구원의 사건(칭의, 중생)을 일으키는 은총이 아니며, 더군다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선행은총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신앙으로 일깨워 사랑의 힘을 갖게 하는 새로운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sup>8)</sup>

## 제2절 칭의와 중생

### 1. 칭의

칭의는 죄인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죄책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며<sup>9)</sup>,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지금 그를 믿는 죄인에게 이뤄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이요, 그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리스도로 인해 죄 전체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sup>10)</sup>

7)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p.125-126.

8) Ibid. pp.113-114.

9) 웨슬리 사업회, 「웨슬리 총서 제2권」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p.451.



칭의는 용서받았다는 의미로서 기록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에게 뒤집어 씌워졌다는 뜻에서 '전가된 의'라고 한다.<sup>11)</sup>

웨슬리는 의인이 되는 순간 성화가 시작되며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적 새로워짐과 보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하여 칭의의 다른 측면에서 동시적인 사건인 중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sup>12)</sup>

## 2. 중생

중생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의인에게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사건이다. 의인과 중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구분된다.

의인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인 무죄선언일 뿐이다. 실제로 의로워지는 내적, 영적 변화는 중생에 있다.<sup>13)</sup> 중생은 생명의 탄생이란 점에서는 하나의 완전하고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성화의 관점에서는 시작이다.<sup>14)</sup>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의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며 초기의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죄에서 용서받으며 죄의 세력이 깨어지면 성결, 또는 완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초기의 성화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

10) 웨슬리 사업회, 「웨슬리 총서 제1권」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p.25.

11) Wiley and Culbertson, 「기독교 신학개론」, 김용련 역(서울: 생명줄, 1985), p.280.

12) Harold Lindstrom, 「웨슬리와 성화」, 정종욱 역(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4), p.129.

13) Wesley, 「표준설교집」, “그리스도의 완전”, *The works of John Wesley*, 14vol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8), vol. v. pp.66-70.

14) 웨슬리 사업회, 「웨슬리총서 제2권」, p.204.

중생은 성결의 시작으로 새로 지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의 속에는 성결의 싹이 돌아옴으로 거룩하게 될 요소를 가졌으나 속으로 새롭게 되어 가는 데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고 아직 완성은 먼 거리에 있다. 중생은 아직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움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로 다만 내부에서 마음을 사주하여 범죄하게 하던 부패를 막을 힘을 기를 뿐이다.<sup>16)</sup>

웨슬리는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영과 육이 같이 죽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대신 마귀의 형상을 본받아 교만과 자기중심주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중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sup>17)</sup>

### 제3절 성화의 단계

웨슬리는 의인에서 성화의 과정까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거기에는 또한 순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무엇이 있는 마지막 순간과 무엇이 없는 처음 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sup>18)</sup> 따라서, 거기에는 순간적인 변화가 있으며, 구원

15) W. T. Purkiser, *Sanctification and its synonyms*,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63), p.15.

16) Thomas Cook, 「신약의 성결」, 감리교교육국 역(서울: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육국, 1986), p.36.

17) 이성주, 「사중복음」 (안양: 성결교 신학교 출판부, 1988), p.42.

18)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Thomas Jackson 3rd edition. VIII vols London: 1892-31, p.329.*

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성장과정이 있다.<sup>19)</sup>

웨슬리는 그의 설교문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원의 질서를 ①선행적 은총, ②칭의 전의 회개, ③의인과 중생(성령체험), ④성화, ⑤그리스도의 완전(완전성화), ⑥영화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성화의 단계를 구분해 보면 네 단계- 초기의 성화, 점진적 성화, 온전한 성화, 영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웨슬리의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화의 단계가 서로 다른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sup>21)</sup>이다.

## 1. 초기의 성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의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며, 초기의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죄에서 용서받으며,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다.<sup>22)</sup>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믿음으로 전에 원수 되었던 사이가 부자(父子) 관계로 회복된다. 이때에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이 관계의 변화에서 볼 때에 ‘관계적 성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주관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객관적인 변화이며, 내적 변화가 아닌 외적 관계의 변화이다.<sup>23)</sup> 신학적으로 칭의가 바로 이 단계에 속한다.<sup>24)</sup>

19) Harold Lindstrom, 「웨슬리와 성화」, 정종옥 역(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4), p.105.

20)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234.

21) 한영태, “성결의 종류와 단계”, 「조종남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p.243.

22) 김영선, p.234.

이 초기의 성화의 단계에서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심과 공포에 휩싸여 심한 내적 갈등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생 후에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점진적인 성화인 것이다.<sup>25)</sup>

## 2. 점진적 성화

기독교인은 칭의 이전에 회개가 있듯이 칭의 후에도 회개가 필연적으로 있으며 이 회개를 등한히 하면 성결을 기대할 수 없고 은혜 안에서 성장도 할 수 없다.<sup>26)</sup>

신자의 회개는 중생한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육에 속한 마음, 악에로의 경향성, 타락하기 쉬운 마음 즉 성령을 거스리는 육의 경향성을 깨닫는 것이다.<sup>27)</sup> 이것은 중생전의 회개와 다른 올바른 회개로 자신의 죄인으로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는 것이며<sup>28)</sup>,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신이 죄에 대해 책임이 있고 무능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다.<sup>29)</sup>

웨슬리는 교회신조 제9조에서 원죄를 언급하면서 “이 본성의 부패성은 거듭난 사람에게도 남아있으며 이 신자의 죄는 내적인 죄, 죄 된 성질, 의욕, 감정이라 한다. 신자는 의롭다 함을 받는 순간부터 내·외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나 육욕, 악한 성질이 성령을 거스

---

23) Leo George Cox,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68), p.78.

24) 한영태, “성결의 종류와 단계”, p.243.

25) 홍영신, “칼빈과 웨슬레의 성화론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1995, p.41.

26) 웨슬리 사업회, 「웨슬리총서 제2권」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p.378.

27) Ibid, p.379.

28) Ibid. p.378.

29) Ibid. p.324.

리고 있으므로 서로 대적하는 두 세력이 신자 안에 있음을 긍정해야 한다.”<sup>30)</sup>

이것을 깨달은 신자는 자기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임을 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식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삶을 구세주에게 개방하여 그리스도와의 파손되지 않는 관계의 선물로서 외적 죄를 말소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의 빛으로서 내적 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며 그의 은총의 능력으로서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sup>31)</sup>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 욕의 행위와 악한 성질에서 나오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으며 그가 죄에 대해 죽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된다. 악의 모든 모양도 버리며 힘껏 사람들에게 선행하기를 열심히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 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으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향락을 외면하면서 은혜에 계속 나간다. 이런 식으로 신자는 온전한 성결, 즉 모든 죄에서 완전한 자리로 진행되는 것이다.<sup>32)</sup> 이 기간에 신자는 영적인 싸움을 무수히 겪게 되며 승리와 패배를 교대로 겪게 될 때가 많다. 그리고 내적 신앙의 외적 증거인 선행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때에 나타나게 된다.<sup>33)</sup>

### 3. 완전 성화

웨슬리에 의하면 성도는 성화의 점진적 발전이 있는 후에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으로써 점진적인 과정은 중단

---

30) Ibid. pp.306-309.

31) Williams, Collin., 「존 웨슬레의 신학」, 이계준 역(서울: 전광사,1968), p.139

32) 웨슬리 사업회, 「웨슬리총서 제2권」, p.373.

33) Leo G. Cox,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 p.94.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보다 높은 평면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보았다.<sup>34)</sup>

성화는 중생과 함께 시작되지만, 점진적 성화의 단계 이후에 순간적인 변화로 도달하는 어느 정점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웨슬리는 두 개의 순간적인 체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초기의 성화요, 다른 하나는 그 후에 오는 또 하나의 순간적인 체험 곧 온전한 성화이다. 전자를 불신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얻은 순간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후자 즉 온전한 성화는 신자가 다시 자기의 무능과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신앙체험이다.

이 체험을 웨슬리는 “제2의 축복(second blessing)”, “두번째 변화(second change)”, “온전한 구원(full salva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등으로 표현하였다.<sup>35)</sup> 이 순간적인 체험을 통하여 신자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씻음을 받으며 사랑과 봉사에 더욱 큰 힘을 얻어 승리하는 생활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성화의 체험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sup>36)</sup>

뿐만 아니라 이 완전 또는 온전이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한계성을 그대로 가진 그대로의 완전”이다. 지식에 있어서의 완전이거나, 인간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완전도 아니다. 이 완전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나서 악한 생각, 악한 성질, 교만 등에서 깨끗하여진 완전을 말한다. 곧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만큼 완전하다.<sup>37)</sup>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장막에

34) Harold Lindstrom, 「웨슬리와 성화」, 정종욱 역(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4) p.131.

35) 성기호, “성결론 논쟁Ⅱ”, 「목회와 신학」, 41권, 11월호(1992). p.234.

36) 조종남, 「요한 웨슬리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p.136-137.

거하는 자는 여전히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며 영혼을 압박하는 약점도 지닌 “인간으로서의 완전”인 것이다.<sup>38)</sup>

웨슬리는 절대적 완전은 사람에게도 천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았으며<sup>39)</sup> 이러한 개념으로 완전 성화를 말하지 않았다.

#### 4. 영화

영화는 구원의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서 회심의 단계와 성령 체험, 성화와 완전 성화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완전하고도 흠이 없는 거룩한 영적 인격의 완성 내지는 성취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인격의 완전이며 이는 곧 사랑”이다. 그러나 현세에서의 완전은 끝이 아니다.<sup>40)</sup>

완전 성화를 체험하여 신자의 완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는 무지, 실수, 육체적 연약성 그리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패하는 연약한 인간성은 우리 육체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결코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라도 계속은혜 안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최종적인 의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최종적인 완전” 또는 “영화”라고 한다.<sup>41)</sup>

완전의 최종단계는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다시 말해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몸이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37) John Wesley, 「그리스도의 완전」, 정행덕 역(서울: 전광사, 1986), p.25.

38) Baker, Frank, ed. *The works of John wesley XI*, (Oxford Universtiy, 1976), p.338.

39) John Wesley, 「그리스도의 완전」, p.63.

40)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p.238.

41) 정종훈, “요한 웨슬리의 성화론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1980, p.35.

성화의 과정에서 완전한 성화에까지 계속 성장하여 마침내 영화로 연결된다. 죽음을 넘어선 이 영화의 은총에서 죄로 인한 모든 흔적, 곧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제약성과 허약성, 실수와 부지, 그리고 유혹에서도 해방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물론 무의식적인 죄의 유약성에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sup>42)</sup> 웨슬리는 어느 정도의 완전을 현세에서도 성취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언제나 최종적인 완전은 죽음 후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3)</sup>

## 제4절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 1. 성화와 사회참여

웨슬리의 성화론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성육신적, 사회참여적 사랑행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대되어 간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웨슬리가 말하는 사랑은 모든 계급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다. 웨슬리는 당시의 가난과 실업문제의 원인을 18세기의 사회적 불평등 체제의 결과로 진단하였다. 웨슬리는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할 뿐이다.” 는 일반적인 비난을 “악의에 찬 악마적인” 비난으로 여겼다.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난에 빠져 있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sup>44)</sup>

---

42)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pp.120-121.

43) Leo George Cox,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p.142.

44) Wesley, *Works* III, p.482.



## 2. 경제윤리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 성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열심히 벌어서, 최대한 저축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준다는 금전관은 개인의 삶의 풍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사회가 함께 삶의 풍요를 누리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돈에 대한 웨슬리 3가지 원리를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들이 어떻게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다.

웨슬리는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3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45)

제 1원리는 “열심히 벌라(gain all you can)”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을 사지 말고, 몸과 마음을 해치지 말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웃의 육체나 이웃의 사업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소명을 통해 주어진 시간이나 어떤 것도 결코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상식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고 가르친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재물을 벌고자 하는 자들에게 웨슬리는 이렇게 경고하였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피가 아닌가...피, 피가 거기에 있다. 기초와 마루바닥과 벽과 지붕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다! 너 피의 사람아, 네가 가장 사치스러운 자주빛 아마포로 옷 입었다 할지라도, 너의 피발을 너의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할 수 없다. 네가 몸과 영혼을 파괴시킨 네 고용인들처럼 너의 기억과 함께 너도 멸망할 것이다.”46)

제2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하라”는 것이다. 웨슬리

45)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p.125.

46) Ibid.

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물의 일부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교한다. 여하한 종류의 즐거움이든지 관능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맛을 즐기는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걸치레적이며 값비싼 의복이나 집을 사치스럽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값비싼 그림과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설교했다. 자녀를 위해서도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며, 자녀들에게 돈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막대한 유산이 있을 때에도 자녀가 올바르게 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설교했다. 자녀를 위해서도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며, 자녀들에게 돈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막대한 유산이 있을 때에도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쓸 것을 원하였다.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웨슬리는 비판한다.

제3의 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는 것이다. 열심히 벌고 저축하는 데까지 겨우 이르고 나서, 여기서 멈추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것이 된다고 웨슬리는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삼으셨음을 명심하고 저축한 돈과 재물, 나아가서는 영혼과 육체도 올바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웨슬리는 강조한다. 성화의 영은 재분배에 있어서와 직업에 대한 정신을 지배한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처럼 이것저것 쪼개어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십일조, 십삼조, 십오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가, 믿음의 식구,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청지기 직분을 마치게 될 때 청지기로서 훌륭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47)

웨슬리는 시장경제에 의한 자본의 독점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돈과 음식을 재분배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관심이었다. 가난한 민중이 세금 부담에서 자유하고 국가 경제가 가난한 민중을 위해 발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48) 그는 초대 교회의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모든 소유를 공유할 수 있었던 ‘원시적 공유사회’를 존중했다. 웨슬리는 서구 금융적 직업윤리를 넘어서 경제적인 성공이 윤리적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감리교 윤리에 대한 본질적인 왜곡인 것이다. 사유재산의 철저한 사회적 책임성과 함께 경제의 순환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웨슬리의 경제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천저히 대립되며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정신에 반대의 영향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음을 나타내 준다. 49)

### 3. 사랑의 사회윤리

웨슬리에게 ‘성결’은 곧 ‘사회적 성결’이며, 그것은 하나의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에서 자신의 일을 따르는 동안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성결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는 곧 청지기적인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직업적인 소명의식은 청지기 정신과 더불어 재분배의 문제가 특히 강화되고 있다. 즉 웨슬리가 강조한 금융적 직업윤리는 근면, 성실, 절제, 검소에서 더 나아가 봉사과 사랑의 실천이다.

47)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총서2 (표준설교집 下)」, p.282.

48)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p.124.

49) M.마르쿠바르트,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 조경철 역(대구: 보문출판사, 1992), p.63.

또한 앞서 제시한 웨슬리의 경제윤리에서 제3 원리인 “할 수 있는 만큼 주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탐욕과 치부를 배격하고 물질숭배를 극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적극적 윤리이며, 이것은 금욕적 직업윤리의 완성단계라 할 것이다.<sup>51)</sup>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의 성화론은 개신교 윤리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 제5절 웨슬리 성화론의 특징

이상에서 웨슬리의 성화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의 성화론을 정리하면서 웨슬리에게 나타나는 성화론의 특징들을 몇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웨슬리의 성화론은 성장을 향하여 계속하여 발전하는 상승적 특징과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역동적 요소, 그리고 인간의 노력위에 반드시 함께 부합되어야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절대존재적 요소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신인협력적 특징이 있겠다.

### 1. 상승적 성화론

웨슬리의 성화론에서 초기성화, 점진적 성화, 완전 성화, 영화 등의

50)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pp.131-132.

51) 이원규, “한국사회 직업윤리와 웨슬리적 답변”. 「존 웨슬리와 현대목회」(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p.348.

용어가 사용됨으로 성화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진행된다는 개념을 보인다. 또한 그는 인간의 영적인 단계를 크게 나누어 “자연적인 상태”, “윤법적인 상태”, “복음적 혹은 사랑의 단계”로 구분했다. 52)

이처럼 웨슬리의 성화론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성은 정점을 향하여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상승적인 요소에 있다<sup>53)</sup>고 할 수 있다.

## 2. 역동적 성화론

웨슬리의 성화론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인간의 노력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웨슬리의 성화론은 중세의 신비주의처럼 고독한 명상이나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끊임없이 일하는 기독교 그 자체였다. 54)

또한 신자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였기 때문에 좌와 마귀와의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동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역동적이다.

## 3. 절대존재적 성화론

웨슬리가 그의 성화론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유지되는 완전이었다.

‘올더스게이트 사건’<sup>55)</sup> 이전에 그는 의지와 감정으로 구원의 신앙을

---

52) Wesley, *The Spirit of Bondage and of Adoption*, Works vol5.p.98.

53) 윤효영, “존 웨슬리의 성화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4)p.102.

54) Cell, George C.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Nashville : Abingdon press, 1946).p.82.

대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했으나 그것은 한낱 헛수고에 불과했다. 올더스게이트 사건이후에 그는 성화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요소에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가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함을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매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그에게 남는 것을 불결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성화론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 또한 완전 성화의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며 이 순간 인간은 보다 높은 평면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하여 인간은 보다 성숙한 성화의 단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완전의 최종 단계인 영화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으로 죽음 이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 4. 신인협력(神人協力)적 성화론

웨슬리의 성화론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성화론에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관계와 역할을 강조하는 신인협력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웨슬리는 선행은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선행은총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골고루 주시는 은총이지만 인간이 이 은총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행은총에 응답하여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인간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구원에

---

55) 올더스게이트 사건이란, 1738년 5월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의 한 집회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의 심령속에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그는 이후 영적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의 복음적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George C. Cell, 「존 웨슬리의 재발견」, 송홍국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1982),pp.89-90.

서 멀어져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인협력적 특징을 가진 성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제4장 칼빈의 성화론

### 제1절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은 신자의 신자됨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자의 성화과정도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오갑은 칼빈의 「교육과 신앙고백서」와 「기독교 강요」II판에서 기본적인 네 가지 사항을 도출하였다.<sup>56)</sup> 첫째로, 그의 예정론이 철저하게 신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심판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둘째로, 칼빈은 예정론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공적에 의한 선택이나 구원을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적을 배제한다는 것이 그의 예정론의 핵심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안에서의 예정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의 확실성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거울이다. 즉, 칼빈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근거 또는 도구로 간주했다. 그러나, 나아가 칼빈은 그리스도를 선택의 주체로까지 이해했다. 넷째로, 칼빈의 예정론은 성령론 쪽으로 열려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성화는 선택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자 목표이다.

분명 선택이 성화의 전제가 된다. 선택받는 이들의 여전한 의심과 불신앙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까지 매순간 갱신되는 신앙이 요구되는데, 이는 칼빈에 의하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인 '중생'이다. 중생의 영, 곧

56)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1)",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서원, 1994.9월호), pp.293-297.



성령은 선택된 자들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며 봉인이다.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에서 예정론을 성령론의 맥락안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금 성화론을 선택의 결과이자 목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57)</sup>

새로운 생활의 실재는 선택의 실재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오직 선택에 의해서만 새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살 동안 시작된 성화에 달려 있다.<sup>58)</sup>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 즉 예정에 관한 확실성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선택은 선택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고도 긍정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자체를 입증하며, 구체적인 실재로 그것을 표현하는 소명과 의로움을 통해서이다. 비록, 행위에서 나온 증거는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보았을지언정, 그가 이를 중요한 표징으로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sup>59)</sup>

## 제2절 성화의 요소

### 1. 중생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 바로 이 점이 성화에 있어 딜레마이다. 순종은 종으로 변화 할 때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

---

57) 칼빈은 고리도 전서 1장 2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신성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되며, 이 자체는 우리가 받은 소명의 목적이다.” Francois Wendel, 「칼빈-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p.292.에서 재인용.

58) Ibid.

59) Callvin, 「기독교강요」 III. 14. 18.

기에 단 한순간의 변화에 의함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중생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중생은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죄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올바른 통찰, 이성적 의지, 정연한 사고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생(regeneration)이라는 의미에는 회개, 근원으로의 복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60) 즉, 인간 본연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죄가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파괴했다. 아담과 함께 인간 본성 자체가 훼손되고 병들게 되었다. 61) 이같이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전환은 인간이 현재의 죄성을 깨닫고 본래의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태어남은 회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생의 의미는 회개를 담고 있다.

## 2. 회개

회개(repentance)는 인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속박은 매우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생명 속으로 깨우치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 가운데 실제로 죽은 것이다. 62)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다시 태어날

---

60) 유광웅, “성화론”,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9), p.94.

61) Calvin, 「기독교강요」 III. 15. 1.

62) Calvin, 「기독교강요」 III. 3. 24.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믿음과 함께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를 위한 준비가 된다. 회개는 그 형태로 볼 때 하나님으로 회개이며, 그 내용의 측면으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다.<sup>63)</sup>

웰레스는 “회개”라는 용어는 외적 생활뿐 아니라, 마음, 심령, 태도, 의지 등에서 복음에 대하여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의 전체적 반응을 포함한다.<sup>64)</sup>고 말했다. 이는 영적인 회심과 삶의 전환을 다 포함한 내용으로 아담이 창조될 당시의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을 뜻한다.

칼빈 역시 회개를 단지 외형적 고백에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생활의 외형적 변화는 회개의 내면적 은혜의 가시적 측면이자 그 증거이다. 그러나 동시에 내면적 변화는 외형적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

회개는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의 두 요소를 갖고 있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전향이다. 이런 회개의 두 요소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으로써 옛 생활과 정욕을 죽이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과 성령에 의해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sup>65)</sup>

칼빈은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내적인 것으로 악과 패역으로 가득한 자아와 육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의 가장 완전한 모범은 그리스도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자아에 대하여 죽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들을 죽였고 이것이 내적인 죽임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으며 인간의 육체를 입고 견딜 수 없는 치욕과 고난을 당했다. 이것은 외적인 인간의 죽임이다. 그리스도와 교체하는 신

---

63) Calvin, 「기독교강요」 III. 3. 5.

64)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p.124.

65) Calvin, 「기독교강요」 III. 3. 5.

자도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내적인 자아와 외적인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그의 거룩함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내적으로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외적인 인간의 죽임은 건강, 지위, 명예, 우정과 지상의 생명의 상실로 일어난다. 내적인 자아와 육의 죽임은 외적인 인간의 죽임과 일치된다. 이 내적인 죽음과 외적인 죽음은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살림(vivification)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다.(엡 4:23-24)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구원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다.<sup>66)</sup>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죄는 패기 되고 죽음은 절멸되었다.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는 회복되었고, 생명은 부활되었다.”<sup>67)</sup>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고후 5:17) 이러한 새로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야만 비로소 완성 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현실화이며 궁극적으로는 부활 생명의 선취라 할 수 있다.

칼빈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고 그

---

66) Calvin, 『기독교강요』 II. 16. 13.

67) Calvin, 『기독교강요』 II. 16. 13.

회복은 한 순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평생에 걸쳐 필요하다 고 한다. 신자로서 평생 동안 회개하고 죄악과 평생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육을 죽이기 위한 노력과 훈련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신자의 생활이다.<sup>68)</sup>

### 제3절 성화의 삶을 위한 방편

#### 1. 그리스도인의 생활

칼빈은 성화로서의 삶을 믿음, 회개, 중생을 통하여 신자의 삶에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서 신자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다. 성화의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sup>69)</sup>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곧 성화였다. 이오갑은 “그런 신자의 끊임없는 과정이 바로 ‘성화(Sanctification)’인데, 의미상으로 볼 때, 그것 자체가 또한 경건과 다른 것이 아니다.”<sup>70)</sup>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칼빈은 “경건을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sup>71)</sup>

칼빈은 경건한 사람에게 그가 올바르게 질서 있는 삶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의 의무를 결정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제공해주고 싶어한다.<sup>72)</sup> 그러면서, 칼빈은 우리의 본성은 전혀 의를 좋아 하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의에 대한 사랑이 주입될 수 있

68) Calvin, 「기독교강요」 III. 3. 20.

69) Calvin, 「기독교강요」 III. 6. 4.

70) 이오갑, “칼빈의 경건해석과 현대적 의의”, pp.138-139.

71) Ibid., p.133.

72) Calvin, 「기독교 강요」 III. 6. 1.

으며, 의에 대한 열의를 지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표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변한다.<sup>73)</sup>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에 대한 경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마음의 완전한 성과 신실을 요구한다. 마음의 신실한 단순성, 순결한 마음, 위선과 가장이 없는 진실성은 영적이다. 이 영적인 생활의 출발점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성장시키고 체득하기 위하여 마음의 깊은 감정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순례자의 길이므로, 성공이 작아도 낙심하지 말고 노력을 중단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이를 위해 칼빈은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세우라고 말한다.<sup>74)</sup> 목표를 바라보고 만족에 빠지지 말고 악행을 변명하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갈 때까지 종점을 향하여 계속 분투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다.

## 2. 자기부정

칼빈은 인간의 본성의 부패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원죄로 인하여 인간의 감정, 정열, 능력, 목적 추구들과 같은 요소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지만,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부패로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탐욕과 정욕과 향락을 추구하고 비리와 악을 행한다. 지성과 의지, 영혼과 몸 전체는 탐욕과 정욕으로 더럽혀져서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sup>75)</sup>

이러한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의 부패와 불타는 탐욕을 보면서 칼빈

---

73) Calvin, 「기독교 강요」 III. 6. 2.

74) Calvin, 「기독교 강요」 III. 5. 5.

75) Calvin, 「기독교 강요」 I. 15. 1-2.

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악과의 치열한 전투로서 규정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과 지속적으로 전투하는 것이며, 우리를 탈선시키려는 모든 유혹과 정열과 충돌과 싸우는 전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싸워야 하고, 멸절시키고 죽여야 한다. 우리의 본성과 자연적인 욕망을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직의 표식인 참된 단순성과 정직성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정욕과 사악, 반역하는 자연적인 성향을 부정해야 한다. 그러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다.

자기부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이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다. (고전 6:19)<sup>76)</sup> "우리가 주의 것이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롬 12:1) 우리 자신을 드리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이성과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고, 육의 향락이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해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이성과 마음의 자연적인 평가와 사변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엄격히 훈련함으로 극복될 수 있다. 자기 부정은 감정과 마음의 악한 정열과 사악한 감정을 극복하려는 훈련을 포함한다.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

76) Calvin, 「기독교강요」 III. 7. 1.

걸는 훈련이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의 갈망과 소유와 생명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의 본질에 속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보화와 자량을 버리는 바울의 고백에 일치된다.<sup>77)</sup>

자기 부정의 본질적인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을 섬기려는 제자들에게 절실히 요구한 것은 자기부정이다.(마 16:24). 자기 부정이 확립되면 자만과 허식이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교만과 과장된 허식을 피할 수 있다. 욕망과 자량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전심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sup>78)</sup> 하나님에 대한 자기부정은 자신이 광적인 노력과 근면으로 재산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 한다. 주께서 주시는 복에 몸을 맡기면서 평화와 안심을 얻는다. 우리의 수완이나 수고에도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 축복하시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쁜 결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얻은 복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결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고와 악한 생활에 돌아서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듯 자기부정의 진정한 내적인 검증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결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쓰고 있는가에서 확인된다.<sup>79)</sup> 그러면

---

77) Calvin, 『기독교강요』 III. 7. 2.

78) Ibid.

79) Calvin, 『기독교강요』 III. 7. 8-9.



우리는 사악한 계략과 탐욕으로써 재물을 취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고, 지위와 명예를 쟁취하기 위하여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부정의 중요한 요소가 발견된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모든 인간이 맹목적으로 지닌 자기에(自己愛)를 버리고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한다. 모든 재능과 지혜는 하나님 선물이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능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므로 그것을 존중해 주고 이웃에게 준 영예를 우리가 훼손하면 그것은 큰 죄악이다. 결점이 있어도 이웃을 관대하게 대하고 그를 다정한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대하라는 것이 성서의 교훈이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남보다 낮게 공손하게 대하라는 성서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투쟁욕과 이기심을 치료한다.

이제 칼빈은 적극적인 자기 부정의 성격을 밝힌다. 자기를 부인함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하는 것이고, 이는 성령님의 역사와 결부된 것이다. 즉, 이웃 사랑의 이유가 이웃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구속의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외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sup>80)</sup>

자기 부정은 이웃의 관계에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빌 2:3),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한다.(롬 12:10).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맡겨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은 사랑의 실천이다.<sup>81)</sup> 우리가

---

80) Calvin, 「기독교강요」 III. 7. 6.

실천해야 할 이웃의 봉사과 사랑은 사람의 종류와 그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경외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불의한 행동이나 감정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의 악의를 보지 않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를 선대하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다.<sup>82)</sup> 이러한 자기부정은 역경을 견디는 힘을 준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신자는 추수를 얻지 못하는 황량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에게 위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장 공정하게 배정한다는 것을 확신하므로 우리는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 주는 큰 유익이다.<sup>83)</sup>

이와 같이 칼빈이 밝힌 성화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부정의 삶은 단순히 자기 극기와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믿음으로만 가능하나.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 점에서 자기부정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죽이는 현실적인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참다운 자기 부정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참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으로 일어나기에 칼빈은 자기 부정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육의 정욕을 죽이는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이

---

81) Calvin, 『기독교강요』 III. 7. 5.

82) Calvin, 『기독교강요』 III. 7. 6.

83) Calvin, 『기독교강요』 III. 7. 10.

러한 효과적인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씻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 3. 십자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의 내적 태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  
지는 삶의 외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 제자로서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내적으로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쓴잔을 마실 각오를 해야  
한다. 먼저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끊임없는 십자가였다. 머리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몸과 지체가  
된 우리들의 십자가는 다름 지라도 버리와 몸은 서로 연합되어 있으므  
로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고난은 머리된  
고난당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의 제자들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되는 것은 신약에서만 아니라 구약에서 고  
난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을 위하여 혹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고 궁지에 몰리고 감옥에 가고  
명예와 재산을 빼기고 생명을 희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특별한 표식과 같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훈련하고 단련시킨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 때, 우리의 성화과정이 진전되고 그리스도의 형상  
을 닮아 가게 된다는 확신으로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인내할 수 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친구가 된다. 제자들  
과 교회가 십자가 아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귀고<sup>84)</sup> 그리스도의 죽음과 친교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친교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십자가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꺾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도록 한다. 우리는 재난 속에서 자만심이 꺾여 인간으로서 이 재난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재난을 극복하다는 것을 믿는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위에서 있다는 것을 아는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자신의 용기와 선과 지혜를 과신한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육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에 몸을 맡기게 한다.<sup>85)</sup>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준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인내하는 중에서 경험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앞으로도 신실하리라는 확증을 주시기 때문이다.<sup>86)</sup> 칼빈은 이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칼빈은 이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지는 십자가를 강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수한 휘장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악을 거부하고 의를 위하여 일어설 때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잃을 위험에 부딪힌다. 때로는 투옥, 추방,

---

84) Calvin, 「기독교강요」 III. 8. 1.

85) Calvin, 「기독교강요」 III. 8. 2.

86) Calvin, 「기독교강요」 III. 8. 3.

감옥에 수감, 치욕을 당하고 사형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자고 한다.<sup>87)</sup>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을 것이고 괴로움과 멸시를 당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굳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죽임을 당하면 복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고통의 가시는 찢어서 피가 흐르고 눈물을 억제할 수 없을 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자고 칼빈은 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드러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학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느낀다. 십자가의 고통은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이 깃들인다.

이렇듯 칼빈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니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각시킴으로써 인내와 순종을 가르친다는 말로 축약 될 수 있다.<sup>88)</sup>

#### 4. 내세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삶을 경멸해 하는 습관을 드림으로서 다음 세상에 대해 묵상할 수 있도록 자극을 받는 것이다.<sup>89)</sup>

---

87) Calvin, 「기독교강요」 III. 8. 7.

88) Calvin, 「기독교강요」 III. 8. 4.

89) Calvin, 「기독교강요」 III. 9. 1.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깊이 숙고하는 것이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수한 그 말씀에 매달리는 것이며,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다.<sup>90)</sup>

내세에 관한 묵상은 신앙의 한 측면이다. 그것은 죽은 후에 완성되는 어떤 것을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천국 생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

내세에 대한 묵상이 본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그런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런 설명은 지상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보는 다양한 글들에 비추어볼 때 확신을 준다.

칼빈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땅 위의 것들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이다.

칼빈의 성화론의 태도는 결코 부정적인 가톨릭적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내세의 삶이라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에 현실에 대한 거리두기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경건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적절히 절제하는 선에서 얼마든지 현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삶 사이에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반대개념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칼빈의 사상의 특징이기도 하다.<sup>91)</sup>

지금껏 우리는 칼빈의 성화론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내세에 대한 묵상은 구체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는 방편들이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의 내면적인 동참이고, 십자

90) John Leith,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89 재인용.

91) Battles, “칼빈이 보는 참된 경건”, 「칼빈신학의 이해」, p.20.

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의 외형적인 모방이며, 내세에 대한 묵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의 동참을 바라보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의 동력이 된다.

## 제4절 칼빈의 성화론의 특징

### 1. 복음적 성화론

첫째, 성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이다. 이 말은 성화가 단순히 우리의 금욕적 노력과 헌신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보장해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또 이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죄와 효과적으로 싸우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은사를 수반한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 칼빈의 사상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정하는 범위는 하나님의 택정의 범위 안에 제한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칼빈의 성화론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웰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 생활을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자 모본인 부인의 과정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겪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의 모형은 내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우리 기독교 생활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92)</sup>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델이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인 자기 부인의 내면적 과정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92)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p.73.

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자기를 억제함으로써 자기 부인의 완전한 모범이 되셨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묵상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관되어 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위한 모범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로, 칼빈의 성화론은 성령적이다. 결국, 칼빈이 이해하는 성화는 성령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성화를 이루어, 흠이 없고, 성결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sup>93)</sup> 이것이 바로, 성령론의 맥락 안에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의 맥락안에 성화론이 자리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 2. 전인적 성화론

칼빈의 성화론은 전인적이다. 내적으로 영혼을 외적으로 육신과 환경을 포괄하여 설명한다.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한 자기의 내외면을 아우르는 죽음의 과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자기부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내면적인 과정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외면적인 과정이다. 전자, 즉 자기부인이라는 직접적인 측면은 우리의 이해력과 의지를 죽이는 것이고, 후자, 즉 십자가라는 간접적인 측면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에 관련된 것이다. 내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으로,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옛 사람의 죽음을 통하는 것인데, 즉 우리의 본성적 정욕을 죽이는 것과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충동들과 제안들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즉, 마음의 내면적 태도에서 뿐만 아니라 외형적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

93) Calvin, 「기독교강요」 III. 11. 1.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서 환경적으로 밖에서 오는 많은 고통들과 환란들에 관련되어 있다. 실상 치욕과 환란 가운데에서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엔 육체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3. 종말론적 성화론

칼빈의 성화론은 종말론적 특징을 지녔다. 이에 대해 홀트롭은 루터와 칼빈의 성화론을 비교하면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칼빈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아울러 종말론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sup>94)</sup>

종말론적인 지향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방식은 내세에 대한 묵상이다. 그는 성화의 삶 중에 내세에 대한 묵상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세에서의 성화의 한계를 인정한다. 칼빈이 세상에 대한 경멸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세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얼굴로 보게 될 날을 고대한다. 칼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중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서 행복을 찾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전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완성은 미래에 놓여있다. ... 메디타티오 코엘레스티아 비타에(천상의 삶에 대한 묵상)는 칼빈에게 메디타티오 푸투라에 비타에(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와 동일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 뒤에 오는 완성과 성취를 향해 분투한다. 오직 미래에 의미와 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세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따라서 우리는 순례를 계속해 간다. 그것은 현세의 흑암을 감연히 뚫고 나가 부활과 승천의 날에 도달하는 순례다.<sup>95)</sup>

94) Holtrop, P. C. 「기독교강요연구핸드북」, 박희석 · 이길상 공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p.223.

95) Ibid., p.224.

칼빈은 “그리스도는 분리시킬 수 없는 교제의 줄로 우리를 부착시킬 뿐 아니라 놀라운 연합으로 마침내 그가 완전히 우리와 한 몸이 될 때까지는 매일 점점 우리와 하나가 되는 몸 안에서 합일이 될 것이다.”<sup>96)</sup> 이 말은 우리가 현세에서 완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현세에서 ‘이미 (already)’ 현실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아직 아닌(not yet)’라는 말을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sup>97)</sup>

---

96) Calvin, 『기독교강요』 III, 2, 24.

97)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6), p.124.

## 제5장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 비교

지금까지 성화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웨슬리의 견해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 두 신학자간의 성화론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 제1절 공통된 견해

#### 1. 중생에 대한 이해

웨슬리와 칼빈은 중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웨슬리는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대신에 마귀의 형상을 본받아 교만과 자기 중심주의적 생활을 하게 되었기에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칼빈 또한 중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인간 본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보았다.

#### 2. 성화의 시간적 개념

웨슬리와 칼빈은 성경이 성화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우선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과 구별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다. 또한 성화는 거룩한 생활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일이다. 끝으로 성화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에 이르므로 미래의 일이다. 웨슬리와 칼빈은 성화의 궁극적 완성을 죽음 이후에 이룰 수 있는 미래적 차원에 두고 있다.

### 3. 성도의 노력

웨슬리와 칼빈은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성도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규율을 힘써 따라야 하고 매일 악을 버리며 하나님의 의의 길을 택하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맞서 싸우는 이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성경이 약속한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sup>98)</sup>

## 제2절 서로 다른 견해

### 1. 성화의 시작

칼빈의 성화론의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칼빈은 신자의 신자됨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르는 것처럼 신자의 성화도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철저히 신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공적에 의한 선택

---

98) 델빈 디이허 외 4인,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출판부, 1991), pp.7-8.

이나 구원을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는 성화의 시작으로 선행은총을 이야기한다. 선행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이며,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총이다. 따라서 인간이 간구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 자체 안에 주어져 존재하는 은총을 말한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리 값없이 주어진 은총으로 만인구원론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웨슬리의 선행은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에 따른 인간의 응답도 중요하게 여긴다. 칼빈이 신중심적인 성화론이라면 웨슬리는 신인협력적 성화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2. 칭의와 회개

웨슬리와 칼빈은 중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중생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웨슬리는 중생과 더불어 동시적인 사건으로서의 칭의를 이야기하였다. 칭의는 용서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뒤집어 씌워진 뜻에서 전가된 의를 이야기하였다. 칭의를 통하여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로 인해 죄 전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중생의 경험과 함께 회개를 이야기한다. 중생의 경험은 회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회개는 인간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생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완전 성화에 대한 견해

칼빈은 완전 성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웨슬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점진적 성화 뒤에 오는, 한 단계를 뛰어넘는 평면에 도달하는 완전 성화를 주장했다. 이는 성화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속성”과 성화적 삶의 “성장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나타낸다. 즉, 칼빈에게 있어 성화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편-그가 주장하는 자기부정, 십자가, 내세에 대한 묵상-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계속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한 순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평생에 걸쳐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신자는 평생 동안 회개하고 죄악과 평생 동안 싸워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중생과 회개의 경험만이 있을 수 있으며, 죽음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반면, 웨슬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에 의해 한 단계를 넘어서는 ‘제2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보다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의 힘이 크며, 완전 성화는 중생 이후에 또 다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순간적인 체험으로 신자가 다시 자기의 무능과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신앙체험으로 이를 통해 점진적 성화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완전 성화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성화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 성장해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도 완전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인간의 한계성을 그대로 가진 그대로의 완전”으로서, 온전한 성화의 체험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님을 밝히며,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까지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한다.

#### 4. 성화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칼빈의 성화론은 내세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도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성화의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편들을 제시하였다. 즉, 그가 제시한 성화를 위한 삶의 방편-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 내세에 대한 묵상-들은 성도의 내적인 의지적 노력들을 강조하며 내세적이고 세상에 대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배타적 성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웨슬리의 성화는 사회나 공동체에 대해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을 넘어서 사회까지 각성시키자는 '사회적 성화'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가령 경제윤리에 있어서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되, 사치와 낭비를 금하고, 근검하는 청교도적 자세를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논의들은 기독교적 경제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사회참여와 각성으로 실용화에 매우 지대한 영향들을 미쳐왔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비단 개인적 차원 이상의 것으로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은 성경에 이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차원에서 이미 나타나 있다. 이처럼 칼빈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성화를 이야기하는 반면 웨슬리는 개인적 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성화에도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5. 신학방법론의 차이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성화론이 칼빈의 성화론과 다른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신학 방법론의 차이이다. 칼빈은 무엇보다 성경을 우선하여 성경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철저하게 논리적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역시 “한 책의 사람”으로 성경을 중시하였으나 이에 하나 더 첨부하여 “체험”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체험에서 이상이 생길 경우에 성경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웨슬리에게는 체험이 칼빈보다 훨씬 더 중시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화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짚어갈 부분은 성화의 중요한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거룩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



## 제6장 결 론

앞서 신학의 거두이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모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과 노력들을 바로 '성화'의 삶을 통해 제시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논의가 단지 과거의 훌륭한 '전통'으로서 역사 속에서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성숙시키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다. 복음이 전해진지 불과 백 년이 지난 지금 벌써 한국교회는 정체상태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외적인 성장만에 전념해왔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인 모으기에 급급하고,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그것이 성장의 전부인줄 착각해왔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에 대해 무관심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가 단지 수적인 팽창과 외형의 아름다움과 규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 즉 과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도리로, 경건과 거룩을 좇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소수의 빛과 소금같은 존재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살아있는가 의문스럽다.

성화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인간의 의

지와 노력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전적인 은혜의 축복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중생을 통해 인간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구도(求道)적 삶을 살아가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성령에 있어 왜곡된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성령충만을 은사나 능력 위주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성령충만이 곧, 은사충만, 능력충만이라는 하나의 공식이 많은 교회에 만연해있었다. 이러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대한 제한적 인식은 부흥회식의 뜨거움이나 흥분된 감정을 통해 방언이나 체험을 얻는 단순구도로서 정의되어왔다. 그러기에 성령을 통한 방언이나 기적, 은사를 체험하는 것에만 집중됨으로서 자신을 보다 성숙시키는 영적 성장인 '성화'의 삶에 대한 인식은 도외시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신학은 자연히 육신적인 축복과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출세를 복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더욱 자극하여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교인만을 배출했다.

그러기에 교인들은 교회를 세상의 축복과 마음의 안식을 구한다는 상의한 두 목적을 만족시키는 장으로서 모이게 될 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모델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된 삶의 도를 쫓는 데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회역시 이러한 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도를 각성시키고 도전하며 칼날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스트레스와 경쟁이 만연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권면과 윤리적 위안을 주기에 애쓰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 교회는 저성장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세상

을 변화시키는 도전과 개혁의 본으로서도 설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웨슬리와 칼빈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동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나와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양적, 외적 성장만을 중요시하였지, 성도들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이를 깨닫고 한국교회의 성숙한 내적성장을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교회 공동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앞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성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하여 성화의 삶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성화의 삶이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화의 삶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나와서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면, 이러한 교회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성화가 아닌 교회가 성화되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성화의 삶은 계속해서 분열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는 한국교회에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웨슬리가 이

야기한 사회적 성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성화의 삶이다. 웨슬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화와 더불어 사회적 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죽어가던 영국 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던 웨슬리는 성화의 삶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이를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죽어가던 영국 사회에 생명의 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회적 성화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개인적 차원과 교회 공동체의 성화의 삶을 뛰어넘는 사회적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앞에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통해 살펴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참여와 바른 경제관, 사랑의 사회윤리의 회복을 통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한국사회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세속적인 타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말씀이 교회의 최종권위로 위치하고 교회의 순결과 거룩이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귀중한 유산인 기도의 큰 축복을 후대들이 물려받아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

성도 역시 자신을 말씀 속에서 거룩과 성결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인 '성화'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론을 통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가 다시 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ondon: James Clarke & Co., 1962 Vol. 4). 김분제 역(세종문화사, 1981).

\_\_\_\_\_. *Calvin's Commentary*. 「신구약 칼빈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1, Vol.40)

Wesley, John.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Ed. Jackson, Thomas. 14 vol.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_\_\_\_\_. *Wesley's Standard Sermons*. Ed. Sugden. Edward H. 2 vol. (London: The Epworth Press, 1955).

\_\_\_\_\_.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Telford John. 8 Vol. ( London: Epworth Press, 1931).

\_\_\_\_\_.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M. 8 Vol. Ed. Nehemiah Curnock. ( London: the Epworth Press, 1960.)

\_\_\_\_\_.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London: The Epworth press, 1948).

\_\_\_\_\_.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Lonon: ( The Epworth Press, 1960).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 2」 (서울: 기독지혜사, 1989).

정인찬 편, 「성서대백과사전」 (서울: 기독지혜사, 1980).

웨슬리사업회, 「웨슬리 총서 제1권」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 \_\_\_\_\_. 「웨슬리 총서 제2권」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 웨슬리, 존. 「그리스도의 완전」, 정행덕 역(서울: 전망사, 1990).
- \_\_\_\_\_.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_\_\_\_\_. 「존 웨슬리 총서 1, 2권 (표준설교집 上 · 下)」, 박봉배 · 조정남 공역(서울: 웨슬리 사업부, 1976).
- 칼빈, 존. 「기독교강요(상·중·하)」, 김종흡 외 3인 공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 2. 부자료

-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박건택,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송홍국, 「요한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 유광웅,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이성주, 「사중복음」 (안양: 성결교 신학교 출판부, 1988).
- 이원규, 「존웨슬리와 현대목회」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 조종남,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_\_\_\_\_, 「요한 웨슬레 설교선집I」 (서울: 도서출판 청파, 1994).
-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_\_\_\_\_, “성결의 종류와 단계”, 「조종남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기성출판사).

## 외국서적

Baker, Frank, ed. *The works of John Wesley XI*, (Oxford University, 1976).

Battles, F. L. 「칼빈 신학의 이해」, Donald K. McKim 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Cannon, W. 「웨슬레신학」, 남기철 역,(서울: 기독교대학감리회교육국, 1986).

Cell, George C.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Nashville: Abindom press. 1946).

Francois Wendel. 「칼빈-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Harold Lindstrom, 「웨슬리와 성화」, 정종욱 역(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4).

Holtrop, P.C. 「기독교강요연구핸드북」, 박희석·공길상 공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Hynson, Leon. 「웨슬레의 윤리사상」, 이희숙 역,(서울: 전망사, 1987).

Leo George Cox,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68).

Lindstrom, Harald. 「웨슬레와 성화」, 정종욱 역,(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92).

M.마르쿠바르트,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 조경철 역,(대구: 보문출판사, 1992).

멜빈디이허 외 4인, 「성화에 대한 5가지 견해」, 김원주 역(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Thomas Cook, 「신약의 성결」, 감리교교육국 역(서울: 감리회 교육국, 1986),

W. T. Purkiser, *Sanctification and its synonyms*,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63).

Wallace, Ronald S,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Wiley and Culbertson, 「기독교 신학개론」, 김용련 역(서울: 생명줄, 1985),

Williams, Collin. 「존 웨슬레의 신학」, 이계준 역(서울: 전망사, 1968)

## 연구논문

윤효영, “존 웨슬리의 성화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4

정종훈, “요한 웨슬리의 성화론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1980.

조성국,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인간책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1987.

최재행, “존 웨슬리의 완전론 속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 석사학위논문,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 1996.

한영성, “존 웨슬리의 성화론의 특징”, 석사학위논문,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 1994.

홍영신, “칼빈과 웨슬레의 성화론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1995.

## 정기간행물

성기호, “성결론 논쟁Ⅱ”, 「목회와 신학」 41권(1992, 11월호).



이오갑, “칼빈의 경건해석과 현대적 의의”, 『말씀과 교회』 23집  
(1999/2000, 겨울호).

# **ABSTRACT**

## **A Comparison Study of The Sanctification of John Wesley and John Calvin**

Kim, Jong Sin

Dept. of Theology

Hyup Sung Theological Seminary

Hyup S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 Sun**

The Great Development of Korean Churches amazed the World in its 100 year - church history. But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churches and Christian people failed to keep the pace with the qualitative aspect which resulted in declination with diminution of laymen and distorted point of view upon Christian belief, for instance fanaticism, grace-centralism, blindness for the Holy Spirit. Considering it, I began to research the Sanctification of John Wesley and John Calvin to quench

the spiritual thirsty of churches and their people. In it, I compare the idea of J. Wesley's Sanctification with that of J. Calvin's and apply it to the Korean church and the Christian in them which, I expect, make each of them live a seeker's life.

The Sanctification of both is based on the Bible. Moreover, its starting point is at the change through conversion and repentance and it is completed by the revival accompanied with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Bu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viewpoints in that Calvin suggested a way of Christian life as Christian life, self-denial, meditation on the Cross and the Next World based on the Sanctification which relates to the Predestination. He claimed steady Sanctification which seeks for personal effort and glory. On the contrary, Wesley suggested 'transcendental Grace' which is made by personal effort after transcendental Grace of God is given. He referred to 'the Phases of the Sanctification' which, he insisted, consists of 'the early Sanctification', 'the steady Sanctification', 'the utter Sanctification' and 'The Holiness'. In this procedure, he said that God's intervention which is called 'the Second Blessing' will cause the elate level in certain phase in addition to human effort, and it made difference with Calvin. Specially, in the case of J. Calvin, the idea of Sanctification is personal and of Next World but, according to J. Wesley, the idea of that includes God's active intervention and the social level, that is, social renovation.

I considered the common and different points of both in the Sanctification. Through it, I would explain how we should apply it to Korean church and Christian.

First, we should live the life of Sanctification personally. To recover the Image of God which was lost because of the human depravity is made by the private relationship with God, neither simultaneous nor universal. So, in it, we should live the life of

Sanctification personally. Secondly, churches should live the life of Sanctification, if they consists of those who believe in God and live a life of Sanctification. Thirdly, we should live a life of the social Sanctification which is beyond the personal level and church level. Christians should make Korean society recovered from the serious weakness and sickness through the social participation, the right viewpoint upon the economy, social ethics of love to have the Kingdom of God stand here.

Until now, I considered the Korean Christians, churches and society with the stand of Sanctification of J. Wesley and J. Calvin to put the forth the right way to go. In conclusion, I really hope that Korean churches be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the Sanctification and be changed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of God, the Heavenly Father.